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마치
제 아들과 부모처럼 생각합니다”
혼자서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강호연의 이런 생각에 힘입은 바 크다



효자 소방관, 부천 강호연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제 부모처럼





강호연은 사업에 실패하고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경남지역 소방관 모집에 응모하게 된다 하지만 매사에 철두철미한 성격을 타고난 그답게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소방관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 위험한 훈련에 자원하여 참가하고 남보다 먼저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요 사이 초등학교 어린이들로부터 장래희망을 물으면 소방관이나 119구조대가 빠지지 않고 인기순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텔레비전 인기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이제 유치원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소방관이나 119구조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위험에 처하면 우선 119를 떠올리게도 되었다.

그러나 강호연이 소방관이 된 1980년 가을만 해도 소방관은 그리 환영받는 직업이 되지 못하였다. 강호연은 사업에 실패하고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경남지역 소방관 모집에 응모하게 된다. 하지만 매사에 철두철미한 성격을 타고난 그답게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소방관으로만 만족할 수 없어 위험한 훈련에 자원하여 참가하고 남보다 먼저 불 속으로



2년 동안의 구조대 근무기간 중에 각종 사고현장에 천여 회 출동하여 많은 인명을 구조하였다



뛰어들었다.

그러다보니 소방관 생활 20년인 지금까지 2천 5백 차례 화재현장 출동, 530여 명의 인명을 구조한 대기록을 지니게 되었다.

1998년 마스크를 떠들썩하게 했던 부천 대성에너지충전소 가스폭발 사고 화재시에는 1·2차 폭발로 목과 발목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만을 받은 채 사고현장에 재투입되어 최일선에서 인근에 있던 암모니아 가스탱크로의 연소확대방지에 주력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수훈을 세우기도 하였다.

1991년 전국적으로 '119특별구조대'가 창설되었을 때 강호연은 부천소방서 119특별구조대 창설대원으로 참가했다. 119특별구조대는 헬기 투하 등의 특수 훈련을 받고 고층빌딩의 화재나 재난사고에 투입된다. 그는 2년 동안의 구조대 근무기간 중에 각종 사고현장에 천여 회 출동하여 많은 인명을 구조하였다. 특히 1993년 부천의 한 가정집 화재에 출동하였을 때는 집안에 아이 둘과 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혼자 불 속으로 뛰어들어 세 차례에 걸쳐 아이들과 할아버지를 무사히 구하는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이 마치 제 아들과 부모처럼 생각합니다.”

혼자서 위험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강호연의 이런 생각에 힘입은 바 크다.

강호연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저돌적인 행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소방관이지만 집에 돌아가면 병석에 누우신 어머니를 극진하게 간호하는 착한 효자이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로 12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지난해 돌아가셨다. 매년 1회꼴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면서 일주일에 3회의 혈액투석을 해야만 하는 환자였다. 소방관의 박봉으로는 비싼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그의 아내가 식당일까지 하며 병원비를 보태야 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강호연 소방관은 어머니 앞에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는 효성을 보였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가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느라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자, 아예 어머니가 치료를 받고 있던 성가병원의 인공신장실 투석환자와 함께 1년에 한번씩 야유회를 다녀오는 행사를 만들기까지 할 정도였다. 또한 강호연은 어머니의 오랜 투병생활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많아 자신의 장기기증을 약속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자신의 뇌사시 각종 장기 및 각막·시신·뼈 등을 사랑의 장기기증본부에 기증할 예정이다.

그에게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터득한 독특한 스트레스 해소법

이 있다.

“살다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면 중환자실을 찾아가 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보면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욕이 솟거든요.”

격일로 아침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소방관이란 직업은 하루 평균 한두 차례 정도 화재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등 항상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일이다. 최근 신고건수가 부쩍 늘면서 샤워를 하거나 화장실에 있다가도 신고를 받고 황급히 출동해야 하는 일이 잦은데, 출동했다가 부부싸움 중에 쫓겨난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씁쓸한 웃음이 나온다고 한다.

강호연은 소문난 효자이자 용감한 소방관으로 20여 년을 근무하면서 경기도지사 및 부천소방서장의 표창을 여러 번 받았지만 자만하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부천소방파출소에 출근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준비하는 소방관을 천직으로 아는 사람이다.

강호연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이 있는 한 우리 국민의 안전은 항상 푸른불이다.



부천소방서 중앙파출소

032-668-0119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밝은 표정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단순히 우편배달이 아닌
사랑과 기쁨도 함께 심는다는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



친절한 집배원, 성남 박충규

친절과 봉사를 우체통에





성남 우체국 직원은 하루도 빠짐없이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밝은 미소로 아침을 여는 선배 집배원을 만난다. 사랑과 기쁨의 전령 박충규가 바로 화제의 집배원이다.

전 화한 통화로 모든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컴퓨터의 발달로 인터넷 속에서 전세계의 정보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요즘같은 세상에 집배원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아직도 사람의 발길이 뜸한 산간벽지·도서지역 등에서는 집배원만큼 반갑고 고마운 사람도 드물다. 그들은 단순히 집배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주민들의 상담원이기도 하고 외부세계와의 통로이기도 하며 집안의 대소사를 함께하는 가족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예전과 달리 첨단 통신시설이 발달한 대도시에서의 집배원은 그런 따뜻한 대접을 받기 어렵다. 그런 사실을 입증이라도 하듯 최근에는 힘든 집배원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속에서도 새로 집배원이 되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사람 중에 성남 우체국 직원이 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참 행운아다. 왜냐하면 그곳에선 하루도 빠짐없이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밝은 미소로 아침을 여는 선배집배원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과 기쁨의 전령 박충규가 바로 화제의 집배원이다.

정작 당사자는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이라며 겸손해 한다.

1973년부터 26년간 집배업무에 종사해온 그는 직장의 기독교인들의 모임인 신우회 회장으로 직원들의 정신적 지주인 셈이다. 또한 탁구회

한통의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하루에도 서너번이나 같은 집을 방문하는가 하면 우편물 배달을 위해서는 밤늦은 시간도 마다하지 않는다



회장직도 맡아 정기적으로 탁구대회를 열어 직원들의 건강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철저한 직업의식을 후배 집배원들에게 일깨워주는 산교육자이기도 하다. 한 통의 편지를 배달하기 위해 하루에도 서너 번이나 같은 집을 방문하는가 하면 우편물 배달을 위해서는 밤늦은 시간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날 배달되지 못한 우편물이 있으면 우편배달통지서를 작성하여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놓아두어 방문사실을 알리고 다음날 다시 방문하여 배달하기도 한다. 후배 집배원들은 그런 그의 성실한 모습을 보면서 집배업무의 소중함을 다시 새기곤 하는 것이다.

그는 우체업무 외에도 주민을 위한 선행과 봉사에도 단연 으뜸이다. 집배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를 오토바이로 즉시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돕고도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고마움을 느낀 어린 환자의 부모가 우체국장을 직접 찾아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드러난



그가 처음 집배원의 길을 택한 것은 이 일이 좋아서는 아니었다. 생활고를 이기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후배 집배원들의 모범으로 바뀌었다

적도 있었다.

또 집배 중 알게 된 할머니가 당뇨병으로 걷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겨져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할머니를 위해 약을 지어다 드리기도 했다. 집배원의 박봉으로 어려운 주민을 돕는 등 자신의 집배구에서 주민과 항상 하나되는 생활을 해왔다.

“늘 주민을 만나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친절한 인사와 배달은 집배원이 갖추어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미소짓는 그는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밝은 표정으로 위로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단순히 우편배달이 아닌 사랑과 기쁨도 함께 실는다는 자세로 임하게 되었다고 털어놓는다. 그러면서 집배업무가 몸은 비록 고달파도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일로 스스로에게도 자리잡게 되었다고 한다.

그가 처음 집배원의 길을 택한 것은 이 일이 좋아서는 아니었다. 생활고를 이기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일이었다. 중학교 때에는 등록금을 내지 못해 시험도 치를 수 없었을 만큼 가난했던 그는 직장을 다니며 야간고등학교를 겨우 마칠 수 있었고 무슨 일을 해서든 돈을 벌어야 했다.

“예전에는 배달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먹살을 잡히고 욕설을 들은 적까지 있었지요. 또 동네를 다니면 어린 아이들이 뒤따라 다니며 ‘우체부, 우체부’ 하고 놀리기도 했지요.”

미숙한 컴퓨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후배직원들에게 찾아가 물어보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의 겸손함과 열성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한다



26년간 집배업무를 보며 그가 겪은 일이 어디 그뿐이겠는가. 처음에는 참기 힘들어 싸우기도 많이 했다는 것이지만 이제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경지가 되었다고 한다. 집에서의 가훈도 ‘몸도 깨끗, 마음도 깨끗’으로 정해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든 정직하게 살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요즘에는 중노동에 가까운 집배업무를 꺼려 떠나는 젊은이가 많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일 가운데서 찾으려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하기도 한다. 또한 앞으로의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컴퓨터 등을 업무에 적절히 이용하여 자기개발에 힘쓰기만 한다면 집배업무도 얼마든지 전문직종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비친다. 사실 얼마 전부터 박충규는 컴퓨터에 폭 빠져 있다. 집배정밀지도를 작성하면 배달업무를 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숙한 컴퓨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후배직원들에게 찾아가 물어보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의 겸손함과 열성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한다.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사람,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람, 나아가 우리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직종의 일을 하든지 성공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며 환한 미소를 띠는 박충규 으뜸이. 오늘 저녁 그에게 ‘당신이야말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감사의 편지를 띄워보면 어떨까.



성남우체국

0342-741-0001



“단지 교통법규를 지켰을 뿐입니다
승객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모시고, 자동차보
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마음으로 운전합니다”

투철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으로
같은 분야에서 능동적인 그는
분명 모범이 되고도 남을 직업인이다



모범 택시기사, 의왕 백고현

승객을 서비스
천국으로 모십니다





자 동차 보유대수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을 자랑하면서도 아직 그 교통문화에 있어서는 후진국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시민의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택시의 경우도 난폭운전과 불친절·외국인에 대한 바가지 요금 등으로 종종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의왕의 모범택시기사 백고현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성실하게 살자, 어디에서든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20여 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경기도 최고의 으뜸기사가 된 백고현의 성공비결이다. 그는 79년부터 지금까지 개인택시 운전을 해오면서 기사들 사이에서는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힘들다고 알려진 내무부장관 10년 무사고 성실상을 90년에 수상하였고 95년에는 경찰청장 15년 무사고 발전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더욱 빛나는 것은 단순히 무사고 운전자이기 때문은 아니다. 운전을 하며 남모르게 실천해온 선행이야말로 그를 더욱 값지게 한다. 뺑소니 차량사고를 당한 채 방치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만사를 제치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조치하는가 하면 택시 안에서 습득한 승객의 분실물은 끝까지 주인을 찾아내어 되돌려주는 성의를 보인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거리에서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면 아무리 먼거



20여 년간의 무사고 운전경력
과 투철한 서비스 정신으로 79
년부터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힘들다고 알려진 내무부장관
10년 무사고 성실상을 90년에
수상하였고, 95년에는 경찰청
장 15년 무사고 발전상을 받았



리라도 마다하지 않고 태워준
다. 물론 요금도 받지 않은 채.

“단지 교통법규를 지켰을 뿐입니다. 승객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며 모
시고,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마음으로 운전했을 뿐입니다. 당
연한 일인데 상을 받다니……”

그는 크고 작은 선행을 마땅히 해야 할 일로만 여길 뿐 으뜸기사로 뽑
힌 것을 오히려 쑥쓰러워한다. 그러나 투철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으로
맡은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만나기 힘든 요즘 세태에
비추어보면 그는 분명 모범이 되고도 남을 직업인이다.

그는 자신과 같은 평범한 소시민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우리 경기
인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낀다고 한다. 복잡한 골목이나 산꼭대기까지
태워다준 손님이 감사전화를 걸어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20년 베테랑이 된 지금은 운전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만취손님을
다루는 비법도 터득했다. 대개 이런 손님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깊은
잠에 빠지기 일쑤인데 일단 잠이 들면 아무리 깨워도 소용없다고 한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손님이 차에 타자마자 집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이라도
부인이 깨우면 금방 일어난다니깐요.”

이 정도면 만취손님을 모시는데는 확실히 으뜸이가 되었다며 사람 좋



은 웃음을 웃는다.

앞으로의 활동이나 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며 단순명료하게 답한다. 교통사고 1위국의 불명예를 씻기라도 하듯 오늘도 묵묵히 핸들을 잡고 달리는 그를 보면 우리의 내일도 함께 밝아지는 기분이다. 지금쯤 운 좋게 백고현의 택시를 탄 손님이라면 복잡한 도심에서 한줄기 상쾌한 바람을 만난 기쁨을 누리고 있으리라.



▶ 찾아가기

달리는 으뜸택시: 서울 35바 5459



으뜸택시

011-720-5459



한 번 닦으면 광택이
1주일 이상을 유지한다고 한다
수선의 경우도 일단 그의 손을 거치면
신발이 다 떨어질 때까지 튼튼해서 성남의 전업소
중 제일이라는 칭찬을 받는다



사랑의 구두미화원, 성남 김춘환

구두처럼
마음도 닦습니다






“구두 닦는 거나 수선솜씨에서 제가 결코 성남에서 1인자는 아닐 겁니다 추천하는 것처럼 대단한 비법을 지닌 것도 아니구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구두닦기 으뜸이 김춘환의 첫마디이다

○ 명인의 성공담을 들어보면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있다. 어려운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 중엔 반드시 ‘구두닦기 등 안해본 일이 없다’는 것. 구두를 닦는 일이 이처럼 힘겹고 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그 속에 깔려 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 한번 쯤 스쳐 지나갔던 그 구두 닦는 일, 그러나 여기 남들처럼 한번 쯤 겪어본 일이 아닌 그 힘겨운 일 자체로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다. 한평생을 구두 닦는 일로 묵묵히 일관해온 구두미화원 김춘환.

“구두 닦는 것이나 수선솜씨에서 제가 결코 성남에서 1인자는 아닐 겁니다. 추천하는 것처럼 대단한 비법을 지닌 것도 아니구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구두닦기 으뜸이 김춘환의 첫마디이다. 16년간 구두닦이를 하며 처음 받아보는 큰 상이라 기쁘기는 하면서도 그다지 자랑할 것도 못된다고 겸손해 한다.

그러나 그를 아는 주위사람들은 그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기술 또한 최고라고 꼽는다. 구두 닦는 솜씨를 보면 한 시간에 15켄레 정도를 처리할 만큼 빠르고, 한 번 닦으면 광택이 1주일 이상을 유지한다고 한다. 수선의 경우도 일단 그의 손을 거치면 신발이 다 떨어질 때까지 튼튼해서 성남의 전업소 중 제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아직도 다른 사람과 그의 직업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회분위기,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으뜸이가 된 이 유를 부득이 하게 들라면 김춘환 자신은 '욕심없이 살고 오래 참는 대'는 생활자세를 꼽는다. 욕심이

없다보니 부자나 잘난 사람들이 부러울 리 없고 자신의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으니 주위사람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람'으로 인식된다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때 그 일에서 보람을 느끼게 마련이다. 구두를 닦으러 일부러 멀리서 차를 타고 오는 손님, 혹은 몇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는 손님을 만날 때가 가장 기쁘다고 한다. 평소에도 구두를 닦거나 수선을 했을 때 고객이 만족해 하면 정말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16년 동안 구두를 닦으면서 마음까지 닦아온 '닦기 명수'이지만 참기 어려울 만큼 비감한 적도 많았다. "일을 시키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연배의 손님이 '야야' 하며 번번이 반말을 내뱉을 때는 제 직업에 회의가 듭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과 그의 직업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회분위기,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김춘환은 같은 업종 종사자들과 함께 '초록회'라는 봉사단체를 조직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밖에 특별히 남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없으나, 누구든지 길을 묻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쳐주는 것으로 봉사의 마음을 대신한다고 한다. 보행자가 많은 길에서 하루종일 일하면서 나름대로 선행할 수 있는 작은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서 취재하러 온다고 하지만 제 기사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같은 생활은 달라질게 없습니다. 1년 후 아니 10년 후에도 저는 이 자리에서 변함없이 구두를 닦을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닦는 자세로 항상 구두를 닦는 김춘환 미화원의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우리의 거리를 사랑으로 넘쳐나게 만드는 듯하다.



▶**찾아가기**

지하철 수서~분당선을 타고 태평역에서 하차. 중앙시장 방향으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린다. 중앙시장 건너편 농협 건물 앞에 위치한다.



▶**주변볼거리**

남한산성 도립공원



집

0342-754-9858



어린이 인성교육용 비디오와 책을 제작하는가 하면
96년도부터는 아예 인성교육원을 설립,
본격적으로 어린이 인성교육사업에 뛰어 들었다



인성교육의 길잡이, 수원 남영희

우유배달로 번 돈 어린이 인성교육에





인성교육원 원장 남영희의 본업은 따로 있다
그의 본업은 23년 전부터 시작한 우유배달이다

“아 이들을 교육시켜 어른을 가르치자.” 인성교육원 원장 남영희의 으뜸이 10여 년째 변함없이 외쳐오는 구호이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다. 아이들의 행동이나 성격을 보면 어른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언행은 곧 자녀의 인성과 직결된다. 어른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그것이 곧 어린이 인성교육의 지름길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어른들에 있다.

“잘못된 인성이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진 어른은 쉽게 고쳐지지 않을 뿐더러 대개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른이 어린이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털어놓는 인성교육원 원장 남영희의 본업은 따로 있다. 그의 본업은 23년 전부터 시작한 우유배달. 새벽 4시 2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부인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우유판매대리점으로 출근한다. 우유배달은 새벽 5시부터 3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진다. 힘겨운 일을 마치고 아침을 든 후에 그는 또다시 출근을 준비한다. 그가 이번엔 아침을 여는 곳은 목욕업협회 수원지부. 83년도부터 경기도 목욕업협회의 대소사를 처리하는 월급쟁이 사무국장이라는 또 하나의 직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일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는다. 어린이 인성교육용 비디오와 책을 제작하는가 하면 96년도부터는 아예 인성교육원을 설립, 본격적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다가 목욕탕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눈여겨보았던 업계관계자들이 그에게 협회 사무를 맡기게 된다



어린이 인성교육사업에 뛰어 들었다.

우유배달과 목욕업협회 사무국장, 인성교육원 원장. 사람들이 들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만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런 일이

그에게선 서로 무관한 일이 아니다.

이야기는 우유배달을 시작하던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영희가 처음 우유배달을 시작하던 20여 년 전만 해도 보통 사람은 세끼 밥을 챙겨먹기도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런 상황이었으므로 값비싼 우유를 찾는 사람도 드물 수밖에 없었다. 팔리지 않는 우유를 들여다보며 걱정하던 그가 눈을 돌린 곳은 바로 목욕탕. 기존의 배달방식에만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판로를 개척해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목욕탕과 인연을

한번 마음 먹은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마는 성격인 남영희는 결국 사재를 털어 어린이 교육용 비디오 '꼬마신사'를 제작한다



맏게 되었고,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눈여겨 보았던 업계관계자들이 그에게 협회 사무를 맡기게 된다.

목욕협회의 일을 보기 위해 이번엔 목욕탕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 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목욕탕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이 실종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어른 아이 구별할 것 없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 물을 함부로 낭비하고 목욕집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서로의 인격을 무시하기 일수였다. 게다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어린이들을 누구 하나 나무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남영희는 자신이 해야 할 새로운 일이 있음을 깨닫는다.

바로 어린이들의 도덕불감증과 예절 상실을 이대로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식화운동을 벌여 고쳐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중 우연히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자신이 직접 교육용 영화를 만들어 보급해야겠다는 아무진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엄청난 제작비가 소요되는 일인 만큼 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한번 마음 먹은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마는 성격인 남영희는 결국 사재를 털어 그 일을 감행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꼬마신사'이다. 5~7세 가량의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용 영화였다.

최근에는 7천만 원이나 들여 비디오테이프와 두 권의 책(어린이용과

교사 및 학부모용)을 만들어 어린이 인성교육에 써달라며 경기도교육청에 기증하기도 했다. 또한 화성군의 한 폐교(구 함산초등학교)에 인성교육원 간판도 내걸고 어린이 캠프·부모를 위한 인성교육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의 프로그램에는 ‘꼬마신사’ 관람과 목욕탕 이용예절에 관한 것이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를 위해 목욕탕 시설까지 마련했다.

그의 이런 행보를 사람들은 정신이 나갔다고 핀잔하거나 아니면 뭔가 딴 생각이 있을 것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조차 의욕과 취지는 좋지만 돈 없고 힘 없는 소시민 한 사람의 외침이 어디까지 가겠느냐고 그의 일을 말린다. 하지만 남영희는 주위의 시선이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힘겨운 일인 줄 알지만 자기 한 사람마저 이런 일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기심과 불법이 판치는 암울한 미래밖에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목욕탕에서 시작한 어린이 의식개혁운동이 언젠가 사회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날까지 남영희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어린이들의 예절정신과 인간성 회복이라는 거창하면서도 한편으론 소박한 운동을 외롭지만 씩씩이 전개해왔듯 앞으로도 누가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그는 그의 길에 희망을 신는다. 자라나는 새싹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본을 가르치는 소중한 일이기에 그의 미래는 그 꿈만큼 밝고 활기차다.



▶**찾아가기**

수원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로 권선구 세류3동 정조사거리 세류우체국 옆에 롯데우유 수원대리점이 위치한다.



▶**주변볼거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



롯데우유 수원대리점

0331-235-2287



집 근처의 미용실, 이발관 앞에서 하루종일
살다시피 할 정도로 유난히 예뻐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 그녀를 부모님들은 몹시 귀여워했지만
정작 자라서 미용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집안의 반대가 컸다



미용의 달인, 성남 김용순

신들린 가위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맨손으로 성남에 뿌리내린 지 30여 년 동안 그녀를 거쳐간 제자만도 수백 명에 이르고 한때는 그녀의 미용식구가 대형버스 한 대를 꽉 채울 정도로 대가족일 때도 있었다

‘내 직업에 신들린 사람처럼 되라’ 30년 동안 미용업의 외길을 걸어온 으뜸 미용사 김용순의 직업관이다.

김용순은 이미 전국 모범미용인 선발대회에서 모범미용인으로 선정되었고 제1급 미용사면허증을 취득하여 그 실력을 공인받은 바 있다. 현재 성남시 중부경찰서 자문위원, 경기도 미용사 면허취득시험 감독관, 대한미용사회 성남시 수정구지부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시민합동결혼식, 미용무료봉사, 자연보호, 장애인 미용봉사, 국군장병위문공연, 노인정·고아원 위문공연 등에도 열심히 숨은 봉사자이기도 하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맨손으로 성남에 뿌리내린 지 30여 년 동안 그녀를 거쳐간 제자만도 수백 명에 이르고 한때는 그녀의 미용식구가 대형버스 한 대를 꽉 채울 정도로 대가족일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화려한 그녀의 성공 뒤엔 남다른 삶이 자리잡고 있다.

그녀의 미에 대한 끼는 어려서부터 나타났다. 집 근처의 미용실, 이발관 앞에서 하루종일 살다시피 할 정도로 유난히 예뻐지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 그녀를 부모님들은 몹시 귀여워했지만 정작 자라서 미용을 배우기 시작할 때는 집안의 반대가 컸다. 그녀의 고향은 경북 상주로 양반고장으로 이름난 예향이였다. 부모 형제가 모두 번듯하고 부유



그녀에게는 쉽이란 없다
 요즘도 미용세미나가 열리는 곳이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
 한때는 세미나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배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녀를 두고 '세미나에 미쳤다'고 할 정도였다

한 집안이었으니 쉽게 그녀의 일을 허락할 리 없었다. 더구나 40년 전만 해도 여자가 자기의 적성에 맞게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시절이었다.

김용순은 아버지 몰래 학원을 다니다가 그나마도 쉽지 않자 대전에 있는 친척집으로 가서 학원 수업을 마무리



지어야 했다. 미용학원 졸업 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미용업계에 진출하는 데 반해 그녀는 학원에서 배운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동두천에 있는 경기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하여 1년과정의 미용과를 더 수학 한다.

한 업종에서 최고가 되는데는 단순한 끼나 감각만으론 부족하다. 김용순의 성공비결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노력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30년을 한결같이 '가게문은 내가 남보다 먼저 열고 남보다 늦게 닫는다'는 신념을 지켜왔다. 하루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한다는 철두철미한 생활태도를 견지해온 것이다.

보통사람들 같으면 그 정도 성공했으면 이젠 안주하고 여가를 즐기려고 할 테지만 그녀에게는 쉽이란 없다. 요즘도 미용세미나가 열리는 곳이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 한때는 세미나가 열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

요즈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흐뭇해 하고 있다
 자신이 터를 일군 미용업이 대를 잇게 되었기 때문이다
 막내아들이 선풍 미용의 길을 택하고 나선 것이다



아가 배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녀를 두고 '세미나에 미쳤다'고 할 정도였다.

그럴 때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가진다'는 생각으로 주위의 편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새로운 기술과 유행을 습득하는데 시간과 정력을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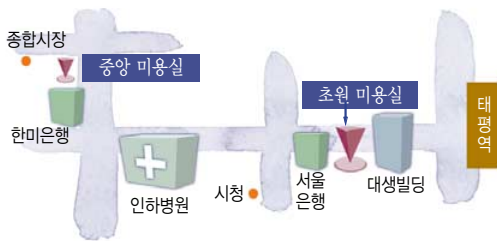
이렇듯 최선을 다하는 직업인 김용순이 20여 년간 존경하며 본받은 인물은 대한미용사중앙회의 김옥진 회장. 지금도 어려운 일에 부딪칠 때마다 달려가서 조언을 구하는 영원한 스승이다. 김옥진 회장은 그에게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창조적인 미용인이 될 것을 강조하곤 한다.

또한 김용순이 자기 일에 몰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녀를 전심전력으로 밀어준 가족들의 숨은 뒷바라지가 있었다. 지금의 성공이 남편의 외조 없이는 불가능했으며 세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준 시어머니께도 오늘의 영광을 바치고 싶다고 한다.

요즈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흐뭇해 하고 있다. 자신이 터를 일군 미용업이 대를 잇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때 가업을 이어 미용업에 뛰어들었던 장남이 결혼 후 중국으로 떠나버려 낙심

했으나 이번엔 막내아들이 선뜻 미용의 길을 택하고 나선 것이다. 막내아들의 선택에 자신이 헛된 인생을 산 것은 아니구나 싶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김용순은 이 직업의 자랑으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을 꼽는다. 그에 보답하는 뜻에서 앞으로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휴양촌을 설립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의 싱그러운 소망이 이루어질 날도 그리 멀지 않았을 것만 같다.



▶찾아가기

초원미용실-성남시청 옆 초원예식홀 2층에 있다.
중앙미용실-성남시청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가다가 인하병원 건너편의 한미은행 옆에 있다.



▶주변볼거리

도립공원 남한산성



초원미용실
중앙미용실

0342-754-3326
0342-734-2181

